

# 옛그림속 茶 이야기

완당난화

## 스승과 제자의 향기나는 인연이 전해져

전라남도 진도(珍島) 출신으로 19세기 호남화단의 기틀을 마련한 소치 허련(許鍊, 1809~1893)은 추사 김정희(金正喜, 1786~1856)의 제자로도 유명하다. 그는 젊은 시절 대흥사에 머물며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를 스승으로 모신 일을 계기로 해, 1839년에는 초의와 다연(茶煙)이었던 김정희의 문 하생이 됐다. 허련에게 있어서 김정희는 심미안을 일깨워주고, 중앙화단으로 자신을 이끌어 일선에 전기를 마련해 준 은사였다. 김정희에게도 허련은 자신의 유배지인 제주도로 찾아와 일 여년을 함께 보낸 고마운 제자였으니 이들 사이의 각별함을 짐작할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완당난화(阮堂蘭話)' 필사본은 이들 사제지간의 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난(蘭)그리는 법에 대해 소상히 밝힌 '완당난화'는 본래 김정희의 글로 허련은 이 필사본을 제작하면서 표지그림을 그렸다. 그는 문집에서 '스승이) 세상을 떠나 구천에 머무시는 중에도 이따금 종이를 펼치고 글씨를 쓰시는 모습이 떠오르기까지 했다' 라고 스승을 회고한 바 있는데, 그래서인지 허련의 추억을 고스란히 그림으로 옮긴 듯한 이 작품은 '완당난화'의 주인공이자 허련의 스승인 김정희를 그린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인 초상화와는 달리 구체적인 생활상이 고스란히 묘사된 이 그림에서는 조선말기 유학자 김정희의 삶이 생생하게 전해진다. 먼저 선비의 평상복인 심의(深衣)를 입고 위엄 있는 정자관(冠子冠)을 쓴 채 서안(書案)에 앉아 글을 쓰는 김정희가 보인다. 서안 위에는 정나라의 경학(經學)과 고증학(考證學)의 새로운 성과를 담고 있는 중국서적들과 벼루, 찻잔 등이 놓여있다. 김정희를 곁에서 모시던 제자는 남다른 눈썹으로 스승이 아끼던 어느 것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림에 담아낸 듯하다.

대각선 구도를 이루는 그림의 왼편에는 김정희를 향해 가지를 드리운 매화나무가 있다. 엄동설한 속에서도 은은한 향기를 뿜어 자신의 존재를 알리는 매화는 선비들의 인격 수양에 부합되는 윤리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다. 선비들은 때로 초봄에 피는 매화를 좀 더 일찍 자신의 서재로 불러들이기도 했는데, 가을에 야생 매화를 분재해 서재에 들여놓고 동지 무렵에 그 만발한 꽃을 보았던 것이다. 추사 또한 매화를 좋아해 '홍원매실(紅園梅室)'이라는 운실을 따로 마련했을 정도이니 그림 속에 매화나무 분재가 놓인 것은 이러한 그의 기호를 잘 반영한 것이라. 매화 옆으로는 역시 이른 봄에 피는 수선화가 고고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다. 수선화 역시 신선의 풍골을 지니고 있어 매화, 난과 더불어 군자의 덕성을 간직한 상징물이다. 매화와 수선화가 향긋한 것을 보니 밖은 아직 추운 겨울이라 화문석(花紋石)이 깔린 서재 바닥에는 화로를 놓았다. 화로 위에는 한창 길이 오르는 제랑호(提梁壺)를 올렸는데, 그 옆



허련 '완당난화' 필사본, 1853년 이후, 지본담채, 26.5x12.9cm, 국립중앙박물관.

에 채색 찻잔이 놓인 것을 보니 음다(飲茶)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시는 초의선사가 선차(禪茶)의 정신을 이어 차의 이론을 정립시키고 김정희와 같은 경화사족들에게 우리 차의 우수성을 인식시킬 때이다. 불교 지식에도 해박했던 김정희가 초의와 교유하며 그의 차를 애용한 사실은 유명한 일화로 차(茶)와 시문(詩文)을 매개로한 이들의 인연은 내내 향기로운 이야기로 회자됐다. 때문에 그림 안에는 초의선사의 차를 아끼고 늘 가까이 했던 김정희의 모습이 보이는데, 다기(茶器) 역시 이러한 일화를 함축한 탓인지 사실적이면서도 아름답게 표현됐다.

이처럼 그림을 통해 스승을 추억하던 허련은 김정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스승의 글을 필사하거나 판각해 많은 이에게 그 뜻을 알리는 데에 힘을 쏟았다. 초의선사 또한 김정희에게 차(茶)와 더불어 허련이라는 훌륭한 제자를 소개시켜 준 것이니 향기가 나는 인연으로 이러한 예는 흔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들의 만남은 그림 속에서 전해지는 차 향기만큼이나 은은하고 깊게 전해진다.

이랑 kang312@hanmail.net 동아아시아문화연구원

##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20 사성선원



종일 눈이 내리고 있었다. 눈은 내려서 발걸음의 길을 지웠고 발걸음에서는 가야 할 길이 가리키고 있었다. 한 발 한 발 눈발이 내리며 다가오는 산 끝의 기척이 돌아설 수 없는 발걸음에 지나간 시간을 뒤엎고, 눈발 끝에 묻어온 바람만 산 끝으로 날아가고 있었다.

눈 덮인 하얀 산이 더 이상 길을 보여주지 않자, 걸어온 길은 걸어온 길로 돌아가 버렸고 발걸음에 산 끝의 기척만이 남았다. 부설거사의 월명암이 있었고, 침묵의 힘으로 서있는 사성선원이 있었다.

잠시 수좌들이 비운 선방의 허공엔 가사 한 벌이 구름처럼 떠있고, 한생각 떠나보낸 좌복 위에는 어젯밤 자지 못한 죽비가 즐고 있었다.

## 옛판화의 세계

### 여동빈이 법을 배우다 (洞賓參問)

'여동빈이 법을 배우다'는 이 그림은 <석씨원류(釋氏源流)>에 등장하는 삽화다. 당나라 때의 황룡 회기(梅機) 스님과 여동빈이 선문답하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 선사에게 불복한 여동빈이 자신의 보검으로 회기 선사를 해치려 했으나, 스님이 이를 먼저 알아채 실패하는 장면이 판각돼 있다.

회기 스님은 회주의 언 선사에게 득법하고 교화의 길에 올라 약주의 황룡산에서 초혜(超慧) 대사라는 시호를 내려 받았다. 여동빈은 팔선 중의 한사람이니 당시 도가의 실력자였다. 화산에서 종리권(鍾離權)에게 금단(金丹)과 검법을 전수 받았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동빈이 회기 선사에게 법을 청해 물었다. "한 알의 조알갱이 속에 세계가 감춰져 있고, 반 되 들이 술으로 산천을 살한다는 이 한 마디 말은 무슨 뜻입니까?"

황룡선사가 말했다. "원래 당신은 사제 같은 죽지 않은 귀신아구나" "화상은 내가 늙어도 죽지 않는 것을 조롱하지 말라. 나의 호주머니 안에는 장생불사의 약이 있는데 어찌하면 좋겠는가?"

"당신이 설사 팔만 겹을 지내왔더라도, 하루아침에 공방(空亡)에 떨어지는 것을 면할 수 없다."

이 문답에 여동빈은 그만 불복하고 밤에 검을 날려 그의 옆구리를 찌르려 했다. 그러나 스님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법의 머리를 덮고 방장실에 단정하게 앉아 있으니 검이 땅에 떨어졌다.

이튿날 여동빈은 스님 앞에 찾아와 사과하니 스님이 말했다. "당신은 이미 반 되 들이 술로 산천을 살고 또 어떻게 하나의 조알 속에 세계를 감출 수 있는가를 듣지 않았는가? 먼저 마음속에 아무런 물건(욕심)이 없어야만 능히 삼라만상을 둘러싸 안을 수 있다." 여동빈은 선사의 깊은 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오도송을 지었다.

"하나 있는 표주박 주머니도 버리고, 거문고도 깨뜨려 버렸다. 이제부터 불사약(금단)에 더는 연연하지 않을 것이리라. 이제 황룡 선사를 한번 만나본 후, 비로소 그 당시 마음 잘못 쓴 것을 깨달았다네."

선사와 도사의 법계장하는 장면이 무명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하다. 우리는 불전을 통해 불법의 수승함도 깨달아야겠지만, 문화의 시대에 좋은 포교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관화박물관 관장)

## 시가 있는 도량

立春

마침내 일어나서  
한 발짝 한 발짝 발을 떼어 놓네  
지금은 생의 느린 그림  
환갑나이에 첫 걸음마 배우듯  
털보자에 목도리 두르고  
아내 손잡고 운동장을 걸고 있네  
죽음의 협곡을 빠져나온 한낮  
천천히 발걸음 옮길 때마다  
누렁이가 꼬리치며 뒤따르고  
적선공덕행(積善功德行)의 발소리가 들리네  
날카로운 바람의 주름  
비둘기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펼쳐주고  
누가 날렸는지 가오리연이 꼬박꼬박하며 올라가네

-김정호,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등단했으며, 현재 시인은 여러 매체에 명사들의 인터뷰 기사와 칼럼을 쓰고 있다. 시집 <나는 乙이다>, 산문집 <희망 한 다발 주세요> 등이 있다.



고관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동빈참문(洞賓參問),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각(半郭), 27.2x18.0cm

Premium Natural **Guava Story** "구아바는 신이 내린 선물입니다." 각종 TV프로그램에서 인정한 "의령 구아바"

- 2009년 12월 11일 : KBS "나를 지켜주세요" 출연
- 2009년 11월 14일 : MBC "그린살비 고령이 좋다" 출연
- 2009년 10월 14일 : KBS "나 내고향" 출연
- 2009년 10월 14일 : KBS "나 내고향" 출연
- 2009년 04월 17일 : KNN "강원송 금요일" 출연
- 2008년 10월 09일 : KBS "나 내고향" 출연
- 2008년 03월 10일 : KBS "나 내고향" 출연
- 2007년 03월 22일 : KBS "무한지대 큐" 출연
- 2007년 03월 09일 : KBS "제왕의 야망" 출연

**구아바 선물세트 Guava Body Set** • 45,000원  
천연 한방 샴푸, 천연 한방 바디클렌저, 향균비누로 구성된 구아바 스킨케어 세트는 소중하고 귀한분들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Shampoo 500ml + Body Cleanser 500ml + Soap 3ea

**구아바 선홍차 Guava SunHong Tea** • (50g) 35,000원  
구아바 선홍차는 두렵고 성숙한, 영양 가득한 차임을 한일 손으로 따내어 수차례 정성껏 따내 만들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 언제든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습니다.

**구아바 천연 한방 샴푸 Guava Shampoo 500ml** • (5EA) 15,000원  
천연 한방 샴푸, 천연 한방 바디클렌저, 향균비누로 구성된 구아바 스킨케어 세트는 소중하고 귀한분들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아바 선홍차 Guava SunHong Tea** • (50g) 35,000원  
구아바 선홍차는 두렵고 성숙한, 영양 가득한 차임을 한일 손으로 따내어 수차례 정성껏 따내 만들었습니다. 또한 카페인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 언제든 마음 놓고 드실 수 있습니다.

**구아바 향균 비누 Guava Soap 100gx3개** • (100gx3EA) 15,000원  
천연 한방 샴푸, 천연 한방 바디클렌저, 향균비누로 구성된 구아바 스킨케어 세트는 소중하고 귀한분들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아바 향균 바디클렌저 Guava Body Cleanser 500ml** • (5EA) 15,000원  
천연 한방 샴푸, 천연 한방 바디클렌저, 향균비누로 구성된 구아바 스킨케어 세트는 소중하고 귀한분들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 주문 수량에 따라 가격 절충 가능 합니다!

온라인주문 [www.guavakorea.co.kr](http://www.guavakorea.co.kr) 전화주문 (055)574-5025~6 [www.guavaland.co.kr](http://www.guavaland.co.kr)

## 신수비결 (효타비결서)

2010년 경신년의 순세 (25,000원)

### "이름대사전"

- 대법원 선정 인명용 한자 중에서 선별
- 작명, 개명, 상호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성씨 별로 2천~3천개의 이름들을 수록하였으며, 한자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자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였음

※ 회원님께는 1개월 동안 40% 할인해 드립니다. (3만원 착불)

### 역학(효타비결 전수생 모집)

아직도 5년 10년씩 역학을 공부하십니까?  
(개인지도 2주에 완성 해 드립니다)

## 효타암 주지 원공 합장

• 농협 121076-56-092613(손선미)  
부산 금정구 금사동 34-4  
문의 : (051)524-9406 / 010-7121-9406

상표등록 614981호, 디자인등록 0407120호, 발명특허 0554383호

## 수제화 고무신코 만행화

**방한용털신**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특무명털신**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5mm단위)

**부츠(여)**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최고의 선물**

**조각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특무명**  
• 가격 : 12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자연색

**사계절단화**  
• 풍산동 99%  
• 지압식 깔창  
• 가격 : 80,000원  
• 규격 : 215-290mm  
• 색상 : 회색, 검정

**지압깔창** 발명특허원41435  
풍산동 99% • 가격 : 20,000원

문의 및 주문전화 : (02)733-5715, 011-9000-5715  
입금계좌 : 농협 063-12-250427(구자인) 합장  
경인년 새해 하시는 모든 일 원만성취, 사부대중의 건강을 발원합니다.  
◆ 동안계 결재증 발급양 올리실 사부대중님의 전화상담 받습니다 ◆